安東金氏大宗會報

發行人 金 明 會
編輯人 金 崙 會
印刷人 金 鳳 會

發行處
서울·東大門區徽慶洞112－49
安東金氏大宗會中央本部
電話：244－3717
對替口座：010983～31～0513119
私書函：서울 淸涼郵遞局 137號

(非賣品)

이 會報는 通常會費 年間 2千원 以上을 納入한 宗親에게 無償으로 配付 하오니 未納入한 宗親께서는 빠짐없이 納付해 주시기 바랍니다.

謹賀新年

世泰時豐
戊辰新禧
陽村 金崙會

新年辭

大宗會長 政治學博士 明會

尊敬하옵고 親愛하옵는 全國의 宗親 여러분!!

그리고 海外宗親 여러분!!

우리는 지난 一年동안 어수선한 政風에 휘말려 混濁한 氣流 속에서 不安과 杞憂의 한해를 그런대로 大過없이 보내고, 이제 安定된 社會와 벅찬 跳躍을 다짐하는 希望의 戊辰年을 맞이하여 宗親 여러분의 家庭마다 幸運이 깃들고, 하시는 일이 더욱 繁昌하시기를 삼가 祈願합니다.

尊敬하옵는 宗親 여러분!!

우리들은 훌륭하신 列先祖의 純潔한 聖脈을 이어받은 後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追遠報本의 精神이 透徹하며, 敬祖의 祭享 또한 禮를 갖추어 闕함없이 行하고 있으니, 이 어찌 우리들의 자랑이 아니리요?

우리가 大宗會를 創立한지도 벌써 二十年의 歲月이 흘러 갔읍니다.

一九六八年 十一月 三日에 뜻있는 在京宗親들이 會同해서 安東金氏 大宗會를 創立 發足한 後로 十年間은 不條理한 社會風潮와 걷잡을수 없는 政治的 不安, 定立되지 못한 經濟難 等으로 運營費조차 없는 零細한 중에서도 꾸준히 이를 克服해 왔으며, 一九七八年 二月 부터 始作된 大同譜 發刊事業은 無一分의 環境에서 全國宗親의 絶對的인 協贊으로 말미암아 類例없는 短時日에 蹉跌없이 畢役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雄壯한 會館을 마련하게 되었으니, 이는 오직 훌륭하신 祖上님의 遺德과 餘蔭에 힘입어, 暗澹한 處地에서도 屈하지 않고, 어려워도 社會惡에 濡化되지 않으면서, 거센 世波를 굳굳한 姿勢로 勘耐 할 수 있는 슬기와 能力이 無에서 有를 創造할 수 있는 奇蹟으로 現實앞에 나타난 것이며 이는 오로지 列先祖의 英靈이 加護하시고, 執行하는 任員들이 滅私의 精神으로 公平正大한 計劃의 妙가 이러한 成果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스리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 繼續해서 忠烈公 先祖의 影幀閣 新築과 이어서 雄壯한 齋室을 增築해서 二百餘祭官이라도 能히 投宿할 수 있게 하였고, 檜谷洞 齋室의 重修와 先祖妣 壇碑改竪, 遺墟碑閣 重建 等의 爲先事業도 計劃대로 完遂하였읍니다.

이래서, 우리 大宗會는 盤石위에 놓여진 宗門의 搖籃으로 燦爛한 旗幟를 휘날리고 있어, 世人의 耳目에는 羨望의 對象이요, 宗門으로 하여금 衿持와 象徵이오, 後世에 繼承될 崇祖의 殿堂이며 敦睦의 場으로 世傳될 唯一의 宗財이니, 이 모두가 宗親들이 뜻을 같이 했고, 힘을 모아서 忠烈公 할아버지에 대한 報本의 孝와 顯揚의 精誠으로 獻納한 結晶이며 宗門의 中興을 成就한 時代的 使命의 一端을 自負하며, 全國의 宗親 여러분의 熟誠에 感謝를 表합니다.

이제 우리 大宗會는 어떠한 强風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센 基盤으로 成長 하였읍니다. 그리고 搖遠한 未來를 向해 前進하고 發展할 것입니다. 三十萬 宗親이 힘을 合해서 管理保存 한다면, 누가 敢히 이를 沮害하오리까.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過去를 回想하고 부푼 希望으로 새 設計를 꾸며 보면서 今年에도 끊임없는 指導와 아낌없는 鞭達를 加해 주시기 바라고 宗中의 盛旺과 宗親의 家庭마다 幸運이 깃드시기을 다시한번 祈願하면서 新年의 인사말에 代합니다.

戊辰 新正

大宗會長 明會 白

幕除碑壇設公使司直密

지난 해 十一月 八日 抱川郡 一東面 社稷里에서 高麗密直司使公(諱 七祐)의 設壇碑 除幕式이 後孫 및 多數의 來賓이 參席한 가운데 嚴肅히奉行되었다.

忠烈公 先祖의 孝玄孫인 密直司使公은 麗朝에서 蔭仕로 從二品官에 올랐으나, 일찌기 世上을 떠나셨고 아들 江華留守公(諱 天儉)이 李朝에서 謀陷을 받아 咸鏡南道 高原으로 流配되고, 後孫이 咸興과 按邊地方에서 世居하였기에 必是 開城地方에 按葬했을 墓所가 失傳된 後 六百年의 歲月이 흘러갔고, 그 동안에 歲享이 闕祀되어 代代의 遺恨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諸般事情이 許容되지 못해서 設壇行事 조차 計劃하지 못하고 내려 오다가, 越南한 在京 後孫들이 뜻을 모으고, 會長 憲默 氏 等 여러 분이 出財하여 設壇하였음은 實로 六百年來의 盛事이었다.

高麗匡靖大夫密直司使

安東金公諱七祐之靈壇

歲在丁卯秋黃花節에抱川郡一東面社稷里山二七番地子坐之原에擇地潔處하고築封三尺에竪桂設床하니是高麗匡靖大夫密直司使公禋祀之靈壇으로累世宿願未就之事가終乃成於雲仍之獻誠하니實로六百年來之盛事己라仍此秉筆하여略記顚末하나니

公諱는七祐요姓은金氏니安東人이라系出新羅敬順王하고至高麗하야冠冕世家로文章事業이繼振國中이러니有諱方慶은出將入相으로平定內亂하고再征日本에樹勳이茂著하여官至僉議令中贊하고受爵干上洛郡開國公하여倉邑一千戶에賜諡忠烈公하니於公高祖也요安東金姓之鼻祖矣라曾祖는奉翊大夫副知密直司使典法判書上將軍諱愷이요王考는文科密直司使寶文閣大提學諱承用으로元朝宣授宣武將軍管高麗軍萬戶하고考는檢校僉議評理上洛君諱厚이니宣授合浦萬戶요妣는驪興郡夫人閔氏也라公이忠烈王中葉에生於開京孤柳里舊第하니世傳忠孝之門이요代襲圭璋之胤이라謹按忠烈公墓誌에曰眼見孫之孫云하니唯公은能承高祖之顔이라是亦稀世之事로다公이自幼로克習家道하야事親竭力하고兄弟篤友할제與弟開城尹公七霖과郡事公七陽이尚幼라同堂棣華에相邁互樂하며雖親嚴酷責이라도唯而不拒하니時人이曰昔有姜公共被之故事러니今見이莫如其事乎하다及長에踐履先業하고博涉經史하여以弱冠에陞密直司使하니階則二品으로官高爵重이나壽不遐齡하니末伸其志에位不滿器하다 公이有一子天儉하니以高麗鷹揚左領別將南面兵馬使로入李朝하여策原從功臣으로江華留守時에以蒙誣禍하고坐謫高原하니子孫이仍居焉하여蔓延干安邊咸興等地하다天儉이生五男하니汝樟은通德郎이요汝檜는府使요汝桂汝栢은士人이며汝弼은文科하다汝樟이生三男하니胤雷는府使요胤儀는監察이며胤震이라汝檜가生三男하니信이요倜은監察이요倪은府使이며汝桂가生男彦壽하고汝栢이生男哲하며汝弼이生男養仲하니以文科로成均直講이라以是로記干始子迄曾하고其餘는繁不盡錄이라

於戲라公歿이今至六百有餘載라邦勢改玉하고不斷兵燹에滄桑이累變하니文蹟之泯滅이라公之豊功偉業을何敢以悉知乎아但按之國乘하고察其家譜하니時適北胡漸侵하여國步多艱이나然이나奸謀者亂政하고忠諫者却之하니君不顧民이요臣不爲國이라際에開城尹公之子寶重이被禍入北嘉山遊臺村하고郡事公七陽은國運終贊에隱居干康津祖墳之下하니功親이皆湖山千里之隔에相信이自絶이라見星相思와鴈聲愁淚가幾年幾世이며況且舊京은荒涼하니公之玄室은何山에安之리요此積世之遺恨이러니今纔在京後孫者가鳩首爛商하고盡誠據財하여將設靈壇之計云하니幸哉라議畢에裔孫僉賢이請余其文한대余亦傍裔者로雖不倭이나不敢辭而如右略述하여報祀干禋之的하나니陟降精靈은昭昭其驗으로是憑貞珉하사穰穰降福을倂祝己矣라

西紀 一九八七年 丁卯十月 日 謹竪

傍裔孫(都評議公后) 金元榮 謹撰
傍裔孫(按廉使公后) 金崙會 謹書

謹賀新年

安東金氏大宗會中央本部

●顧問(行列順)

法務部矯正局長 東哲(副使公派)
腦性麻痺福祉會長 學默(大司成公派)
法學博士
前按廉使公派會長 鳳演(按廉使公派)
前忠北銀行長 在元(翼元公派)
前國稅廳次長 在德(按廉使公派)
前稅務署長 在聲(翼元公派)
前忠北銀行長 在憲(翼元公派)
現國會議員 在光(按廉使公派)
辯護士 泰祚(都評議公派)
仁川大學敎授 在官(翼元公派)
工學博士
前道路公社副社長 瑢會(都評議公派)
工學博士
空軍大領 豫編 吉成(翼元公派)
前空軍本部監察監
榮育農産社長 榮會(翼元公派)
前大宗會副會長 用秀(都評議公派)
前山林廳長 璨會(翼元公派)
大檢中央搜査部長 慶會(提學公派)
獨立紀念館理事長 信(翼元公派)
前서울대敎授 泰吉(提學公派)
哲學博士
利川설봉호텔社長 好振(按廉使公派)
辯護士 燮(大司成公派)
陸軍少將 豫編 鍾贊(開城尹公派)
在日本宗親會顧問 浩圭(都評議公派)

●執行部

會長 明會(翼元公派)
常任副會長 崙會(按廉使公派)
副會長 相棋(提學公派)
副會長 泰亨(翼元公派)

風濤 (19)

井上靖 著
金崙會 譯

(前號에서 계속)

초가을 七월에 원(元)나라에 불려갔던 김방경(金方慶)으로부터의 사지(使者)를 접(接)했다。그에 의하면、김방경(金方慶)은 세조(世祖)를 뵈옵기 위하여 궁중(宮中)에 들어가자、승상(丞相) 다음 자리에 앉히면서 맛있는 음식을 향응(饗應)하면서 금안(金鞍)、채복(綵服)과 금은(金銀)을 사(賜)하면서 그 지극한 총애(寵愛)는 비(比)할데가 없었다고 말하였다。김방경(金方慶)은 이러한 세조(世祖)후비라이의 각별한 대우를 탐라정벌(耽羅征伐)의 은상(恩賞)으로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는데 얼마 안가서 자기에게 중대한 임무가 과(課)해 질것이라고 생각하였다。그리고 또 김방경(金方慶)은 원종(元宗)에게、지금이야말고 고려(高麗)로서는 거국적으로 군신(君臣)들이 다 같이 일대난사(一大難事)에 대처할 결의(決意)를 굳게할 때라고 말하면서、자기가 원도(元都)에 있으면서 느낀것을 전해왔다。일대난사(一大難事)라는 것은 일본 정벌군의 출병(出兵)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十월、홍다구(洪茶丘)도 또 소환되어 개경(開京)을 출발하였다。홍다구(洪茶丘)는 개경을 떠나면서 다시 연내에 비축할 군량(軍糧)의 액(額)을 제시하면서 산판에서 목재반출(木材搬出)을 위한 노역자(勞役者)의 징발(徵發)을 명(命)하였다。어느것도 현재 고려(高麗)가 감당해낼 수량(數量)은 아니었다。

十一월 조량필(趙良弼)에 관한 소문이 입국(入國)한 원사(元使)의 입으로부터 원종(元宗)의 귀에 들어왔다。세조(世祖)로부터 가상(嘉賞)의 말을 받았다는 요전의 소문보다 약간 자세한 내용이었다。조량필(趙良弼)은 세조(世祖)로 부터 일본(日本)을 처야 하겠느냐 아니냐를 물어왔을 때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는 것이다。

신(臣) 일본에 있었던 것이 일년여(一年餘)、그 민족(民族)을 보았을때 이리와 같은 포악한 성질이 실상을 좋아하고 부자지친(父子之親)과 상하지의(上下之義)를 모르며 그땅은 산수(山水)가 많고、경상(耕桑)의 이(利)가 없읍니다。그 백성을 얻어도 쓸모가 없으며 그 땅을 얻어도 부(富)를 이룰수가 없읍니다。하물며 군사와 군함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는데 파도를 예기할 수 없고、피해를 예측할 수 없읍니다。이 유용(有用)의 민력(民力)을 가지고 큰 구렁을 메우는 것과 같읍니다。신(臣)아뢰옵건대、일본을 치지 마옵소서。이 말을 듣고서 원종(元宗)은 조량필(趙良弼)이 오로지 고려(高麗)의 입장에 서서 고려의 운명(運命)을 필사적(必死的)으로 감싸주는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일본을 치지마옵소서 치지마옵소서 치지마옵소서。원종(元宗)은조량필(趙良弼)의 최후의 말이 얼마큼 세조(世祖)후비라이의 마음에 쐬기를 쳤는지 그것을 몇번이고 시험해 보듯이 혼자서 되풀이 하며 지껄여 보았다。되풀이 하고 있는 중에、그것은 원종(元宗)의 입 가운데서 자연이 기도하는 주문(呪文)과도 같은 알수없는 느낌을 가진 말이 나왔다。원종(元宗)은 이때 문득 자기가 "치지말라"고 강하게 소리칠려고 한것이、그것이 분명이 음성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을 깨달었다。몇번이고 시험해 보았으나、마찬가지였다。원종(元宗)은 자기의 목이 언제 자기의 목소리를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누르고 하는 기묘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이때 처음으로 발견하였던 것이다。주위(周圍)사람들은 원종의 목소리가 때때로 나오지 않는 것을 느꼈다。원종(元宗) 자신이 느끼게 된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十二월 수십명의 원사(元使)들이 군량(軍糧) 검사의 작책을 띠고 개경에 들어왔다。고려(高麗)는 관리들을 원사(元使)와 같이 각도(各道)에 파견하여 군량(軍糧)의 수량을 조사시켰다。十二월초에 우박(雨雹)이 오고 눈(雪)이 내리고 해서 눈(雪)은 고려 북반부(北半部)를 뒤덮어 버렸다。

제일부륙장(第一部六章)

작년(昨年)에 계속내리던 눈(雪)은 멈추고 지원십일년(至元十一年·一二七四年) 원종(元宗) 십오년(十五年)의 신년 새아침은 밝아왔다。하늘은 맑게 개이고 강한 햇빛이 눈(雪)으로 뒤덮인 고려(高麗)의 산야(山野)에 내려 쪼였다。개경(開京)의 도읍 큰길·거리거리는 사람들로 번잡하였다。점포(店鋪)와 점포는 거의 눈(雪)으로 반은 묻히고 가게에는 팔 물건이 없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점포와 점포사이를 떼지어 다니고 손님을 부르는 상인(商人)들의 떠드는 소리가 그 사이를 누비며 시끄럽게 들렸다。사람들은 굶주렸을 것인데、여아(女兒)들과 어린 남아들은 곱게 꾸며 입었다。문자(文字) 그대로 빈고곤궁(貧苦困窮)한 중에도 어디에 그러한 좋은 물건을 숨겨두었는가 하는 훌륭한 의복(衣服)를 차려 입었다。 웃는소리、떠드는소리、함성등은 어디까지나 그런 사람들로 이어져 갔다。일년중 잃었던 물건을 이날 하루만이라도 되찾는 것 같았다。다소허탈하기는 했지만 어느정도 밝고 뜨거운 데가 있었다。잠깐 사이에 큰 길은 진흙수렁이가 되어、그 가운데를 고려민(高麗民)과 몽고병(蒙古兵)과、한병(漢兵)과、고려병(高麗兵)들이 같이 어울리고 떨어지고 부딪치고、밀곤하였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수였다。지원칠년(至元七年、一二七〇年)의 환도(還都)의 때는 꿈에도 상상(想像)조차할수 없는 풍성한 해였다。

원종(元宗)은 이날 궁중(宮中)에서 형식적(形式的)인 하연(賀筵)을 베풀고 조신(朝臣)들과 원(元)나라 무장(武將)·관리(官吏)들의 신년하례(新年賀禮)를 받았다。개경(開京)의 거리는 초하루날에 계속하여 그 이튿날도 풍성하였다。도로의 진흙은 일층더 심해서、수많은 잡다한 사람들이 그 진흙 가운데를 어제보다는 느린 속도로 걸어다니고 있었다。이날 이와 같은 개경(開京)도읍에 김방경(金方慶)과 그의 종자(從者)일단(一團)이 돌아왔다。

김방경(金方慶)은 곧바로 원종(元宗)을 알현(謁見)하고 원단(元旦)의 하연(賀筵)에 참례치 못한 것을 사과하고 그리고 세조(世祖)로부터의 일본 정토(征討)에 사용할 병선건조(兵船建造)의 명(命)을 전(傳)하였다。부과된 조선(造船)은 대선(大船)이 삼백소(三百艘)·전라(全羅) 탐라(耽羅) 두곳에서 건조하여 五월을 기한하고 끝내도록 되어 있었다。김방경(金方慶)은 세조(世祖)의 명령(命令)을 말한뒤 자기가 반년 가까이 원도(元都)에 있으면서、마침내 힘이 미치지 못하여 이와같은 명령(命令)을 받게된지경에 이르른 것을 사과하였다。그리고 이 죄(罪)는 죽어도 마땅하지만 그러나 자기는 죽을 수가 없읍니다。왜냐하면、나라가 미증유(未曾有)의 곤란(困難)에 처해 있기 때문에、더욱 살아나갈 모습을 보지 않고는、나의 혼백(魂魄)은 내 몸을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원종(元宗)은 이제 무슨 말을 들어도 놀라지 않게 되었다 자기도 김방경(金方慶)과 같이 이 나라와 더불어 일찌기 없었던 국란(國難)의 길을 뚫고 살아나갈 결심(決心)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김방경(金方慶)은 일본정토(日本征討)의 명령(命令)을 제장(諸將)에게 내린 것은 삼월(三月)이고 출병(出兵)은 초여름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려(高麗)는 이것 때문에、도저히 상상(想像)치도 못할 많은 수의 군사와 역부(役夫)의 징집(徵集)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데 세조(世祖)로 부터의 명령은 홍다구(洪茶丘)가 곧 휴대(携帶)하고 올것이라고 말하였다。

홍다구(洪茶丘)는 김방경(金方慶)의 귀국(歸國)보다 약간 늦게 六일 아침 개경(開京)에 들어왔다。홍다구(洪茶丘)도또 김방경(金方慶)과 같이 곧바로 왕궁(王宮)에 들어가서 원종(元宗)을 알현(謁見)하였다。

홍다구(洪茶丘)는 이번의 대선(大船) 삼백소(三百艘) 건조(建造)에 있어 필요한 공장(工匠)、역부(役夫)、목재(木材)、그외의 물건은 전부 고려(高麗)가 스스로 공급(供給)하지 않으면 않된다는 것과 그리고 조선관(造船官)으로서 고려(高麗)의 신(臣) 허홍(許共)을 전라도(全羅道) 도지휘사(都指揮使)로 홍록주(洪祿週)를 나주도(羅州道) 지휘사(指揮使)로 임명하는 것과 그리고 또 그 위에 설 조선감독관(造船監督官)으로서 김방경(金方慶)을 동남도도독사(東南道都督使)에 임명한다。그러한 중서성(中書省)으로부터의 명령을 원종(元宗)에 전했다。홍다구(洪茶丘) 자신은 조선감독관(造船監督官)과 고려귀부군민총감(高麗歸附軍民總監)이라는 두가지 역할(役割)을 띠고 있었다。다시 또 홍다구(洪茶丘)는 말을 이었다。

「고려(高麗)의 장군 나유(羅裕)등 五인은 각각 부부사(部夫使)로서 전라도(全羅道)·경상도(慶尚道)·동계(東界)·서해도(西海道)·교주도(交州道)에 파견할 것과 공장(工匠)、역부(役夫)는 삼만오백명(三萬五百名)을 징집(徵集)할 것을 일월십오일(一月十五日)까지 기한을 둔다。」

이 장소에는 김방경(金方慶)을 비롯하여 십수명(十數名)의 조신(朝臣)들이 나란이 있었는데、이 홍다구(洪茶丘)의 말에 좌석은 숨을 죽인듯이 조용하였다。삼만오백명(三萬五百名)의 공장(工匠)과 역부(役夫)의 징집이란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니었다。이미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자기에게도 말해 주고 원종(元宗)에게도 그렇게 각오할 것을 미리 강조한 김방경(金方慶)으로서도 안색(顏色)이 변하였다。

「삼만오백명(三萬五百名)?」

김방경(金方慶)은 입으로만 말할뿐 나중에는 묵묵히 있었다。

원종(元宗)은 홍다구(洪茶丘)가 여러번 고려(高麗)에·대하여 불길(不吉)의 사자(使者)로서 자기 앞에 나타났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의 경우가 제일 불길(不吉)하고 가혹(苛酷)한 사자(使者)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한 좌석(座席)에 모여있던 사람들중에는 누구하나 거기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다。그것을 홍다구(洪茶丘)는 세조(世祖)의 명령(命令)으로서 권하여 왔기 때문에 이의를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만일 그것을 정정(訂正)요구한다면 직접 세조(世祖)에 상주(上奏)하거나 중서성(中書省)에 상서문(上書文)을 올리거나 두가지 방법밖에 없었다。거기에 또 삼만오백명(三萬五百名)의 공장(工匠)、역부(役夫)를 모집(募集)하는 일이 불가능(不可能)하다고 말한다면 필경 홍다구(洪茶丘)는 그것이 반드시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구체적(具体的)으로 설명(說明)하고 떠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監事 卿辰 (按廉使公派)
監事 在光 (翼元公派)
總務部長 元榮 (都評議公派)
組織部長 相爛 (提學公派)
事業部長 斗會 (按廉使公派)
財政部長 喆會 (翼元公派)
出版部長 鳳會 (都評議公派)
涉外部長 在文 (典書公派)

●理事

密直司使公派 惠默 (서울)
密直司使公派 泰倫 (서울)
開城尹公派 會福 (서울)
開城尹公派 履範 (서울)
郡事公派 在錫 (坡州)
郡事公派 元鏞 (서울)
郡事公派 在學 (平澤)
典書公派 正教 (華城)
典書公派 景會 (燕岐)
副使公派 在殷 (仁川)
副使公派 圭恒 (鐵原)
大司成公派 喆會 (서울)
大司成公派 在福 (安養)
大司成公派 在承 (서울)
安靖公派 弘默 (公州)
安靖公派 炳善 (城南)
都評議公派 元榮 (義城)
都評議公派 會秀 (서울)
都評議公派 鳳會 (서울)
大護軍公派 成默 (咸平)
大護軍公派 東默 (서울)
提學公派 得榮 (清州)
提學公派 相沃 (天原)
提學公派 相喆 (天原)
提學公派 南應 (天原)
提學公派 瀅植 (槐山)
判三司公派 在錫 (서울)
判三司公派 在鎬 (서울)
按廉使公派 在晩 (清州)
按廉使公派 道演 (槐山)
按廉使公派 潤會 (清原)

(六面에서 계속)

TV드라마, 人間敎育 부족

註. 本記事는 미국 L/A 東亞日報에 揭載 되었던 것을 그대로 轉載하오니 양해 바라오며 앞으로 계속 連載합니다.

本欄 前號의 職名『인간문화연구원장』은『인간교육원장』의 誤植이옵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孝」와 「家族愛」 표현이 아쉽다.

인간교육연구원 원장 **金 道 振** (按廉使公派)

* 외국선 우리 전통사상에 큰 관심

세계각국, 특히 선진국에선 우리의 傳統的인 孝와 敬老思想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는 우리의 전통윤리를 이유없이 버리면서 서구의 개인주의를 비판없이 받아 들이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

해방후 40여년간 주로 서구식 교육을 해온 우리 사회에서는 그네들도 싫어하는 개인주의 사상을 비판없이 받아들이고 그네들이 선호하는 우리의 전통윤리 즉 孝와 敬老思想 등을 이유없이 버리려는 풍조가 만연되어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볼 때 제일 중요한 인간교육은 뒷전으로 미루고 지식위주의 입시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회전체가 교육장이고, 대중매체인 TV드라마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생각할 때 이같은 우려는 더욱 가중된다.

'85년 8월 동경 쓰쿠바대학에서 개최되었던 우리의 大哲學家 退溪 선생의 사상 연구발표회 때에 공산국가를 비롯하여 세계 160여개국에서 2천 여명의 학자들이 참석했었고, '87년 1월 홍콩에서 열렸던 국제대회에는 자유우방 국가에서 수백 명의 학자들이 모인 것을 비롯, 공산국가인 중공에서까지 13명의 학자가 참석했다는 사실은 세계 각국에서 우리의 전통사상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필자가 '86년 미국에 건너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이나 유럽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15~16%에 불과했었다. 이러한 현상은 집단보다 개인이 우선하는 노사분쟁으로 말미암아 기업은 망하고 자기도 실업자가 되는 것을 실감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의 중국인이나 유태인 등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집단주의 가정에서 청소년 범죄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우리와 같은 가족중심의 가정이 우수하다는 것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또한 개인주의 사상이 팽배해 있는 부부중심의 그네들 사회에서도 지식층에서는 우리의 전통윤리를 따르려고 하는 실례를 얼마든지 찾아 볼수 있나.

'80년대 이르러서는 양로원에서 노부모를 다시 모셔가는 가정이 60만 세대나 늘어났고 또 노인공양에 관한 상담소까지 속출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제적 변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서구 물질문명의 홍수속에 고유의 정신문화까지 퇴색해 가고 있음은 서글픈 일이다.

다행히도 최근 우리 것을 찾자는 운동이 일기 시작하여 탈춤, 농악, 굿 등은 서서히 부흥하고 있으나, 윤리 도덕 면에서는 아직도 우리 것이 외면당한 채서구식 개인주의가 TV, 라디오를 포함한 모든 매체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이니 한심하다 아니 할 수 없다.

* 「孝」不在…엄마에게 언성높이는 아들

몇몇 TV드라마에는 아들이 홀어머니에게 싸우기라도 할듯이 언성을 높이거나, 부부간의 다툼에서 「그자식」 「그놈」 「그년」따위의 극단적인 말투가 예사롭게 튀어나와 동방예의지국이란 우리의 안방극장을 오염시키고 있다.

4월 11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방송된 MBC 주말연속극 「사랑과 야망」에서 장남(태준) 차남(태수)이 홀어머니에게 눈을 부릅뜨고 언성을 높여가며 마치 원수와 격투라도 할 듯한 장면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자처하는 우리의 안방극장에서 더구나 효도를 청소년에게 강도높이 요구하는 현시점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장면들이었다.

고등고시에 합격한 지성인(태준) 이라면 감정을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할것이며, 비교적 무식하고 아집이 강한 어머니지만 자기네들의 입장과 의사를 좀더 정중히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장남의 경우 동생과 자기는 나이가 들었으니 어머니에게는,

"일일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잘 처리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맡기십시요"라고 정중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또 거친 성격의 동생(태수)이 두주먹을 불끈쥐고 성난 사자처럼 형에게 가까이 오지말라고 대드는 언행은 兄友弟恭을 부르짖고 있는 이 시점에서 꼭 이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었는지?

작가로서 형제간의 개성의 차이를 묘사하는 데에는 충분했을지 모르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형제지간이라면 성격의 차이, 형편의 차이가 아무리 두드러졌다 하더라도 좀더 아우답게, 자기의 울분을 형에게 울음을 터뜨려가며 호소하는 방법, 통사정하는 방법, 땅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방법 등등 도리어 형으로 하여금 동생을 동정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성난 사자처럼 대들면서 주위의 가재도구를 마구 부수며 소란을 피우는 장면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라 하겠다.

형제지간에 의견의 차이, 성격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청소년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어느 가정에서나 다 엄격히 가려가며 시청케 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청소년과 어린이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얼굴이 후끈거릴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또 외국영화는 물론이고 TV 드라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폭력이나 격투 장면은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목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태수의 정직성과 목재를 공급하는 측의 비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폭력 장면은 항상 정직한 사람과 부조리를 일삼는 사람 사이에 있을수 있는 분쟁이었다. 그러나 그 장면은 의견충돌이나 분쟁의 도를 넘어서 살인에 가까운 장면을 연출했으니(태수가 집에 들어오자 마자 쓰러지는 장면) 이 또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인을 해도 좋다는 것으로 연출한 셈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장면이 아니고도 태수의 정직성과 목재공급자의 비리를 얼마든지 흥미롭게 묘사할 수 있지 않을까. 부모와 선생님의 말씀은 잘 안들어도 재미있게 꾸며진 드라마에 잠재된 메시지는 무의식중에 잘 받아들이고 즉흥적으로 흉내를 내고 싶은 것이 요즈음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성향이라 한다면 폭행, 살인, 상도 등의 동기를 줄 수도 있는 장면을 마구 방송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흥행을 목적으로 하여 돈을 벌려면 청소년 관람불가라는 팻말을 걸고 극장에서 방영할 일이다.

요즘 서구의 개인주의 사상에 물들어 부모는 부모, 나는 나라고 부모를 무시하거나 그 존재를 도외시하고 날뛰는 패륜아를 낳게 하는 장면이 안방극장 에서 태연히 방송되고 있으니 작가는 물론 연출자들도 사회를 혼란시키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문제가 날로 악화되고 사회가 어지러워,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그들의 장래와 우리 사회를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원수처럼 싸우는 부부… 바람직한가

일부 작가들이 TV를 통해 나쁜 면을 보여주는 것을 일종의 반성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안목을 갖추지 못한 어린이 청소년은 그것들을 흉내 내거나 수용하려는 경향이 더 두드러 진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그리고 4월 4일밤에 방영된 부부싸움 장면도 그렇다. 원래 이 부부는 서로의 애정관계가 원활치 못한 사이로서 자주 의견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형편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정에서의 부부의 갈등이나 언쟁에 비해서 아주 저속하고 서구화했다고나 할까, 부부간의 존경이라는 의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마치 남남끼리 원수처럼 싸우는 극단적인 언사나 태도가 마구 방송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자가 태수에게 대드는 장면에서 "대체 어떻게 생긴 년이길래 그렇게 못잊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단 말 몰라?"운운했다.

정자가 태수에 대해 미자에게 말하는 대목도 그렇다.

"그 자식이 글쎄 나 없는 동안 딴계집 애한테 바람이 났었더라구, 그 계집하고 못살고 나하고 사는 게 그렇게 분통이 터지는지 일년동안은 미친 놈처럼 날뛰고 … 정말 가관이었어"

이런 저속한 말을 마구 내뱉음으로써 과연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주자는 것인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 전통적 부부상이라면 아무리 부부간의 애정이 결핍되고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속으로 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미덕이요, 설사 언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호칭을 「그자식」 「그놈 「그년」이라 하는 예는 극히 드물 뿐더러 이런 언사가 튀어나올 정도라면 그 부부간은 파경이요, 한집안에서 살 수 없는 형편에 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속하고 극단적인 용어나 행동을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지켜보는 안방극장에서 거리낌없이 방송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가족중심이 아니고 부부중심인 서구식이라면 가족이나 자녀들을 의식하지 않고 1대1의 부부만의 대화나 행동으로서 위와 같은 장면을 용인할수 있을지 모르나 가족중심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부모형제를 의식하고 부모의 언어나 행동이 자녀교육에 모범이 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장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5월 2일에 방송된 내용, 즉 태준의 누이와 태준의 친구 의사와의 대화중 개인만의 결혼이 아니고 가족 친지의 결합임을 강조하는 대목은 우리나라 전통적 결혼관과 부합되는 등 좋은 장면도 물론 없지는 않다.

흔히 작가들 중에는 시청자들에게 좋은면뿐 아니라 나쁜 면도 보여 줌으로써 반성의 기회를 기대한다고는 하나 이는 상당한 의식수준을 갖고 작품전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에 한정된 얘기고, 작품 전체를 소화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는 반성이나 비판은 커녕 그대로 흉내, 실행, 수용하려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방송국은 작가 개인의 소유물도 연출가의 것도 아니다. 방송이 여러가지 역할을 계도한다는, 보다 높은 차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公器임을 관계자들은 명심하기를 한사람의 부모 입장에서 당부하고 싶다. *

* 애 향 시 *

이 마을 태생은
너나 없이 내고향
아빠따라 앞들에서
쇠풀베고 소뽄기고
엄마따라 뒷밭에서
외따먹고 동부따고
벌거숭이 동무들과
멱감고 물쌈하고
밀서리와 콩서리
고기잡아 천렵하던
잊지못할 어린시절
옛 추억 그리워라
언젠가 틈내어
고향산천 찾으리

清州市 壽洞 상당아파트 103
提學公派 會長 得榮 作

宗門의 現場

忠北 淸原郡 梧倉面 按廉使公派門中編

按廉使派는 우리宗中에서 翼元公派에 버금가는 大宗中으로서 忠淸南·北道와 京畿道 一圓에 主로 分布되어 있지만, 그 總本山은 淸原郡 梧倉 宗中이다。

梧倉面은 人心좋고 禮節 바르다는 淸州市에서 北으로 約 12km 地點에 位置하며, 옛날에 梧根倉이 있든 곳으로, 깨끗이 鋪裝된 幹線道路를 따라가면, 美湖川의 긴 橋機이 나타나고 『梧倉面』이란 鮮明한 標示板이 謹嚴한 姿勢로 길손을 마지한다。

忠州의 車嶺山脈에서發源하여 槐山과 鎭川을 거쳐 흘러내리는 美湖川을 사이에 두고 沿江八面의 中心을 차지한 大平野은 忠北의 穀倉地帶로서, 이 美湖川을 가로막힌 淸美땜은 灌漑에 不足함이 없는 全天候地帶로서 淸原農地改良 組合에서 管理한다。

小白山脈에서 打開되어 鎭川의 烽火山을 朝峰으로 하는 줄기찬 山脈이 燕含山을 거쳐, 鶩嶺山은 梧倉의 鎭山으로 薰氣를 쏟아 주고 永遠한 靈氣로 마을을 守護하며, 俗難山에서 分支된 牛岩山은 案山으로 三十里의 間隔인 淸州의 南山이다。

이 梧倉에 安東金氏가 定着하기는, 먼 六百年의 歲月로 거슬러 올라간다。麗末에 門下侍郎으로 按廉使를 歷任하신 按廉使公(諱 士廉·號 梧隱)은 文詞가 豊富하고 特히 性理學의 泰斗로서 鄭圃隱·李牧隱 等과 交遊하시고 直諫으로 有名하였으나、麗朝가 亡하고、李朝가 創業되자、이곳 梧根村을 찾아 陶山에 隱居하면서 『烈女猶不更 忠臣豈事二』라는 一節의 絶句에 忠節을 담아、漢陽을 向해 앉지도 않으시고 訪問하는 賓客조차 拒絶하셨고、子孫들에게 「高麗의 벼슬을 했다면 李朝에 나가지 말라」고 訓戒하면서「나라를 건지지 못한 罪人이 무슨 面目으로 地下에서 先王과 先人을 만날 것인가?」하면서 孤忠大節을 지키셨으니、英祖大王은 開豊郡 光德山에 表節祠를 세워서 社門洞 七十二賢의 位牌를 奉安할 때、李朝에 不服한 按廉使公 等 六十四賢을 七十二賢과 同等한 待遇로 奉安하였고 道內의 後學들은 公이 隱居하시던、慕亭里 墓下에 松泉書院을 세워서 公을 主壁으로 外 十四賢을 配享하여 歲祭의 香火를 올리고 있다。

按廉使公께서 六男을 두셨는데、위로 四兄弟分은 無后하고、이 梧倉에는 主로 少尹公(諱淪)의 後孫이 世居하며、佐郎公(諱漢樞(府使)·養老(宣傳官)·聲彩(府使)·養業(監牧官)·榮澤(營將)·等 이며、그밖에 科擧를 치루지 않고、蔭仕로 筮仕 한 분은 헤아릴수 없으나、特히 安原君(諱 公亮)은 默齋 李深源(朱溪副正)에게 師事해서 文章事業이 當代에 傑出이었으나、師門의 被禍로 말미암아 殿試에 나가지 아니하였고、後日에 補助功臣으로 使曹判書와 兩館大提學에 追贈되었으니、師門의 禍란、一五〇四年에 任士洪이 일으킨 甲子士禍를 말함이다。默齋 先生은 宗親(王族)으로서 性格이 嚴正하고、學文에 精通하며、醫術에도 明晰해서 二十五歲에 明善大夫 行 朱溪副正이 되었고、前後 五次에 亘한 上訴로 治國의 道理를 論述하였으며、特히 任士洪은 姑母夫임에도 不拘하고 그 好訴함을 看破하고 王에게 〝重用하지 말것〟을 懇曲히 請하여 流配시켰는데、後日에 任士洪이 甲子士禍를 일으킬 때 모함하여 아들 兄弟와 함께 士洪에게 被殺되었다。旰晤沃沃醒醒醒

이 일로 인해서 安原君 께서는 殿試에 나가지 아니하고、세상 일에 귀를 막고 살아셨는데 東儒師友錄에 事實이 記錄되어 있다 한다。

이래서 梧倉의 安東金氏는 圭障世家로、또한 文翰의 家門으로 六百年 동안이나、桑梓를 지키면서 淸廉한 氣質을 固守하였기에 正論에 흔들리지 않았고、熾烈한 黨爭속에서 不偏不黨의 姿勢만을 取하여 왔다는 것을 後孫들은 衿持로 삼고 있다。

그러나 梧倉宗中에도 世態의 탓으로 많은 靑壯年이 都市로 進出하였지만、아직도 二百餘戶의 大宗中을 形成하고 있는데、槐亭里에 約 五〇戶、陽地里에 四〇餘戶、主城里에 五〇餘戶、陽靑里에 四〇餘戶가 世居地를 지키고 있으며、그밖의 里洞에도 數十戶가 散居하고 있어 어딘가 든든한 感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梧倉宗中에서도 어느 儒生들과 같이 깨끗한 선비의 志操를 지니고 있어 新文學에 눈을 뜨지 아니한 탓으로 現代에 著名한 人士를 많이 排出하지 못하였으며、特히 勇庵(諱思禹) 先生은 韓末의 巨儒이다。田良齋(愚)의 高第로서 日本의 侵略行爲에 屈하지 않고、經史의 硏究에 沒頭하여 많은 著作을 남기었고、後學을 養成하였는데、一九八四年에는『勇庵遺稿 三卷이 刊行領帙되었다。

梧倉의 宗中에서 現代의 著名人士가 많이 輩出되지 않았다는 事實은 前述한 바와 같으며、서로 西大門區에서 六選의 國會議員인 在光 氏를 비롯해서、鎭川警察署長을 지내고、大宗會의 發展에 全力을 다하고 있는 常任副會長 崙會 氏、淸原郡副郡守를 歷任한 斗會 氏、梧倉 中學校監 在昇 氏와 陰城 大所國民學校長인 在坤 氏、兄弟、廣惠院中學 校監 元會 氏、前梧倉面長 在福 氏 等을 들수 있고、全國의 按廉使公派의 宗事를 總括하는 按廉使公派의 家務는 曾坪에 있는 佐郎公派 鳳演 氏가 會長으로서 基礎를 굳혔고 現在는 淸州에 있는 在晩 氏가 會長으로서 周到綿密한 計劃下에 進行되며、副會長 潤會 氏와 事務局長 在一 氏와 그밖에 在福 氏、泰文 氏 等이 實務에 當하고 있다。

按廉使公派에서 가장 鄭重히 修治 管理하는 곳은 慕亭里이다。慕亭里는 面所在地인 場垈里에서 約十里許이며 按廉使公이 隱居하시던 陶山의 밑이라、公의 墓所가 여기에 계시고、以上으로 福昌府院君(諱 永煦)과 領三司事公(諱 厨)의 壇所와、以下로 少尹公(諱淪)의 壇所를 奉安한 곳이며、松泉書院은 大院君의 毁撤享되었다가 光復後에 忠淸北道 儒道會에서 唱論되어 復設 하였고、境內에 있는 세 그루의 銀杏나무는 五百年의 風霜을 겪은 蒼然枯木으로 宗門의 喜悲曲折을 默默히 지켜본 唯一한 生体로서 忠北道 指定 保護樹이다。

碑道神(諱士廉)公使廉按

所在地：上 同

松泉書院 祠宇(主壁 按廉使公 金士廉外14賢追配)
所在地：淸原郡 梧倉面 陽地里(杏子木洞)
西紀1908年 肅宗朝의 賜額書院. 1871年 大院君 暴政으로 毁撤. 1974年 忠北道儒 道會 主催로 政府補助를 받아 現位置에 再健 享祀奉行

謹賀新年

都評議公派 金榮秀
大邱市 壽城區 晩村洞 六四四-二〇 B棟

提學公派 金泰龍
密陽郡 三南面 坪村里 三洞

都評議公派 金浩石
義城郡 點谷面 沙村洞

大韓老人會 組織部長 金弘秀
(都評議公派)
서울：冠岳區 新林二洞 九五-九一

翼元公派 金正千
義昌郡 東面 용잠리 一구

都評議公派 金殷聖
서울：道峰區 水踰一洞 六〇五

典書公派 金大會
서울：중구 묵정동 묵정 아파트 四〇三

提學公派 金明年
槐山郡 文光面 廣德里

碩士學位論文

金方慶研究

清州大學校大學院 史學科 李相哲

● 略 歷 ●

- 1953年生
- 1981年 청주대학 역사교육과 졸
- 1986. 8 청주대학교 대학원 史學科 졸
- 현 청주신흥고등학교 교사.

(前號에서 계속)

그리하여 高麗의 宋君斐, 金贊등이 蒙使 黑的 등과 日本에 가기 위해 巨濟縣에 이르러 風浪의 험한 것을 보고 돌아오자 元宗은 이들을 蒙古에 보내 바다를 건너는 것이 不可能하다는 것을 말하였다.[100] 그러나 元宗 8년 8월에 이들이 高麗에 다시와서 日本 招諭를 高麗에 일임하는 蒙古의 두번째 命令을 전달함에 高麗는 부득이 蒙古의 國書와 高麗의 國書를 日本에 전달하였다.[101] 그러나 아무런 効果를 얻지 못하자 蒙古는 元宗 9년(1268) 11월에 또 다시 사람을 高麗에 보내어 日本 嚮導를 강요하였다.[102] 그리하여 高麗는 申思全, 陳子厚등으로 하여금 蒙古 사신 黑的 殷弘 등과 함께 日本으로 가게 하였으나, 이들이 對馬島에 이르러 風浪으로 건너지 못하고 免責의 수단으로 對馬島人 2名을 잡아서 돌아오자, 이들을 蒙古에 바쳤다.[103] 蒙古는 자신의 水路의 약점을 인식하고 對日策에 이용하기 위하여, 對馬島人 2名을 후대하여 同年 9월 高麗人 金有成으로 하여금 이들을 대동, 麗蒙 國書를 가지고 渡日하여 日本에 전달하였으나 여전히 목적을 수행치 못하고 귀국하였다.[104]

원래 蒙古는 日本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차례에 걸쳐 招諭使를 日本에 派遣하였으나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자 大國의 긍지를 살리기 위하여서도 부득이 日本 遠征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蒙古는 出征軍 및 戰艦의 準備를 高麗에 命하였다. 이미 元宗 9년 3월에 蒙古의 사신이 와서 宋을 치려하니 軍士와 배를 도울 것이며, 양식을 저축해 두라고 하였다.[105] 당시 高麗는 30여년간의 對蒙 항전으로 그 피폐 상황이 이루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同年 4월에 李藏用을 蒙古에 보내 準備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함을 해명한 바 있었다. 그러나 蒙古는 宋이나 日本을 치려하니 高麗 軍士 5萬중 4萬을 내어 싸움을 도울 것이며, 戰艦 1千척을 만들되 큰 배는 쌀 3~4千석을 실을 수 있게 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李藏用은 배 만드는 재목은 있으나 백성이 너무 적어 시기에 미치지 못할까 두렵고, 高麗에 옛날에는 4萬 軍士가 있었으나, 30년간의 전쟁으로 거의 다 죽고 4萬은 이름 뿐이라고 하였다.[106] 또 8월에 大將軍 崔東秀를 蒙古에 보내 백성이 적어 농사도 겨우 지을 정도이며, 壯丁이라고는 극히 드물어 힘을 다하여 징발했으나 겨우 萬名밖에 얻지 못했다는[107] 것을 보아 당시의 高麗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同年 10월에 蒙古는 사신을 보내 군사 수효와 戰艦을 사열하고 日本으로 가는 水路인 黑山島를 시찰하였다.[108] 그러나 林衍의 元宗 廢立사건과 三別抄 문제 등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元宗 12년(1271)에 蒙古는 한번 더 日本에 招諭의 방법을 사용하여 趙良弼을 派遣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109] 이렇게 되자 蒙古는 日本을 征伐하기 위해 屯田 經略司를 鳳州에 설치하고 屯田에 必要한 耕牛 3千頭, 농기구, 종자, 當年度 軍糧등을 高麗로 하여금 부담케 하였다.[110] 高麗에서는 여러차례 그 부담의 어려움을 蒙古에 진정하였으며, 元宗 12년 8월 追討使 金方慶의 보고에 의하면 「……界內百姓 皆食草實木葉…」[111] 이라하여 당시의 高麗 사정을 알 수 있다. 또 계속되는 사회적 불안은 증가만 되어갔으니 그 한 예로 耽羅에 들어간 三別抄는 戰艦 糧穀을 약탈, 파괴하고 殺人驅去함이 빈번하였다.

이렇게 허덕이는 高麗를 상대로 蒙古는 日本 招諭의 뜻을 굽히지 않고 高麗로 하여금 蒙使를 先導케 하여 전후 4·5次의 國書를 전달케 하였으나 실패하자, 더 이상의 교섭은 必要없다 하여 耽羅의 三別抄를 토벌한 그 이듬해인 元宗 15년(1274) 正月초부터 점차 遠征 방침이 확정되었다. 우선 戰艦 3백척을 만들어 그에 소요되는 工匠 인부 및 일체의 物資는 高麗 측에 부담케 하거늘, 侍中 金方慶을 東南都督使로 삼아 일을 시작하니 그 독촉이 극히 엄하였다. 이에 高麗는 3만5백명의 工匠 인부를 징집하니 官民의 고난이 극심하였다.[112] 이러한 중에서도 元은 高麗에 군사 5천명을 내어 日本 征伐을 돕게 하였으니, 이와 때를 같이하여 高麗는 造船 인부 3만5백명중 그 반수를 歸農케 하자고 再請願하여 이것이 허락되었다는[113] 사실을 보더라도, 正規軍 5천명을 징발한다는 것이 高麗에서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다. 그러나 5월에 元의 征東兵 1만5천명이 高麗에 도착하는 등[114] 日本 遠征은 착착 진행되었다. 그리고 高麗는 元에 사람을 보내 9백척의 배와 기타 準備가 完了 되었음을 알렸다.[115] 이때 元宗이 昇遐하고 (元宗 15년 : 1274년 6월) 太子 諶은 元에 있으므로 東征 日字가 연기되었으나, 8월에 日本 征討都元帥 忽敦이 京軍 450명을 징발하였으며, 나아가 梢工 水手가 기일내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책임자를 杖刑에 처하고 그 직책마저 교체시켰다.[116] 이렇게 무리하게 日本 征伐의 準備를 서둘러 온 元은 드디어 遠征 출발일자를 忠烈王 즉위년(1274) 10월 3일로 하고 출발항은 合浦(馬山)로 정하였다.

麗元 연합군의 總軍勢는 高麗都督使 金方慶이 中軍, 金文庇가 右軍, 金侁이 左軍을 거느려 三翼軍이라 하고, 총 8천명에 梢工, 引海, 水手 6천7백명이 있다. 또 元의 都元帥 忽敦, 右副元帥 洪茶丘, 左副元帥 劉復亨이 蒙漢軍 2만5천을 거느리고, 9백여척의 戰艦에 나누어 타고 合浦를 출발하였다. 合浦를 떠난 연합군은 對馬島를 공격하여 많은 戰果를 거두었다. 다시 10월 14일 一岐島에 이르러 麗將 朴之亮, 趙忭등이 천여명의 賊을 죽이고, 三郎浦에서 배에서 내려 길을 나누어 賊을 치니 특히 高麗軍의 中軍이 잘 싸워 賊의 엎어진 시체가 삼대(麻) 깔리듯 하였다. 이렇게 金方慶과 아들 忻, 사위 趙忭등 高麗軍이 큰 功을 세우자 忽敦은 경탄하여 「雖蒙人習戰 何以加此」라 하였다. 이때 金方慶이 다시 賊과 싸울것을 忽敦에게 청하였으나 忽敦이 듣지 않았고, 또 劉復亨이 流矢에 맞았기 때문에 드디어 軍事를 이끌고 海士에 대기하고 있는 배로 돌아왔다. 마침 그날 밤에 세차게 몰아치는 태풍으로 戰艦들은 침몰하고 金銑은 弱死하여 연합군은 일단 철수 할 수 밖에 없었다.[117]

여러가지 부담을 지고 遠征에 參加한 高麗는 전투에 임하여서만은 元의 소극적 태도와는 달리 적극적 자세로 전투에 임하였으며 攻防戰에서는 특히 金方慶이 無敵의 勝利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뜻하지 아니한 태풍으로 日本 征伐의 꿈을 버리고 11월에 合浦로 돌아오니, 돌아오지 못한자가 1만3천5백명이나 되었다.[118] 이는 遠征에 參加하였던 전체인원 3만9천7백명에 대한 34%에 해당하는 莫大한 인원이었다.

……

註 100) 〈上揭書〉 世家 卷26 元宗 8年 春正月條

註 101) 〈上揭書〉 同年 8月 丁丑條에 蒙古國書에 이르기를 「…… 自今以往通問結好 以相親睦 且聖人以四海爲家 不相通好 豈一家之理哉 以至用兵夫孰所好王其圖之」, 또 高麗國에 이르기를 「……蒙古가 日本과 通하려는 것은 이름을 天下에 높이려 함이다.」라고 하였다.

註 102) 〈上揭書〉 世家 卷26 元宗 9년 11月 丁卯條

註 103) 〈上揭書〉 世家 卷26 元宗 10年 4月 戊寅條

註 104) 朴亨杓 「麗蒙聯合軍의 東征과 그 顚末〉 「史學硏究〉 21. 1969年 P.63

註 105) 〈高麗史〉 世家 卷26 元宗 9年 3月 庚申條

註 106) 〈高麗史節要〉 卷18 元宗 9年 6月條

註 107) 〈上揭書〉 同年 8月條

註 108) 〈上揭書〉 同年 10月條

註 109) 〈高麗史〉 世家 卷27 元宗 12年 正月 己卯條, 3月 丙寅條

註 110) 〈上揭書〉 世家 卷27 元宗 12年 3月 丙寅條

註 111) 〈上揭書〉 同年 8月條

註 112) 〈上揭書〉 世家 卷27 元宗 15年 春正月條

註 113) 〈上揭書〉 同年 3月 丙戌條

註 114) 〈上揭書〉 同年 5月 己丑條

註 115) 〈上揭書〉 同年 6月 辛酉條에 「…… 船大小拜百隻造訖 合用物件亦皆圓備…」

註 116) 〈上揭書〉 世家 卷28 忠烈王 즉위年 8月 癸酉條

註 117) 〈高麗史節要〉 卷19 元宗 15年 冬 10月條
〈高麗史〉 列傳 卷17 金方慶傳

註 118) 〈高麗史〉 世家 卷28 忠烈王 즉위年 11月 己亥條

金·銀·寶石 加工業

在日本宗親會 總務

金 泰 弘

(都評議公派)

日本 : 神戸市長田區松山町 7-92

電 話 : 078-631-5333

翼元公派 高敞郡 孔音面 七岩里 金永植

서울 : 道峰區 水踰洞 五一一-一三 金泰玉

全州農高庶務課 翼元公派 전주시 인후동 二가 二四 金光表

都評議公派 義城郡 點谷面 鳴皐洞 金浩山

翼元公派 고양군 신도읍 五리 八一八 金明均

隨 聞 隨 錄

서울 城東區紫陽洞
翼元公派 在 冕

검소와 사치

사람은 삶에 많은 충격과 역경을 통해,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은 그 과정을 지나면서 많은것을 잃어 가고 있다.

검소한 사람은 공손하고 사치하는 사람은 거만하며,
검소한 사람은 삼가하고 사치하는 사람은 교만하며,

검소한 사람은 편안하고 사치하는 사람은 수고로우며,
검소한 사람은 부지런하고 사치하는 사람은 게으르며,
검소한 사람은 살고 사치하는 사람은 망한다.

생존 경쟁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꿈과 욕망이 있다. 그러나, 그 꿈이 강하다 해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슬픔과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그 꿈을 조금씩 희생하고 나눠주면서 사는 것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점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세상에는 우선 나 부터 이기심과, 싸움에서 이기며, 자연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어디까지 실천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하고자 하는 마음만이라도 갖는다면 천리길도 한거름 부터라는 속담이 이루어지는 날도 멀지 않으리라.

인간들끼리 싸워서 이기면 승리감을 맛보는 것은 그때 뿐이고, 결국은 승자나 패자나 고통과 불편함을 안고 지내기는 매 한가지다.

나는 싸운다는 말을 사랑이라는 낱말로 바꿔 놓고 생각해 본다.

모든 사람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자신도 사랑하면서 지낸다면 그야말로 지상락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사람은 늘 싸우면서 살라간다.

첫째로 자연과의 싸움이다. 둘째로는 남과의 싸움, 즉 사람끼리의 투쟁이며,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사람살기 좋은 나라는 부(富)가 쌓인 나라가 아니다. 서로의 믿음이 차 있는 나라이다.

도리(道理)와 도덕(道德)

사람의 근본은 공부보다 먼저 사람답게 살아가는 도리를 알아야 한다.

조부모님의 진지상을 차리는 어머니의 정성에서 효(孝)를……
뙤약 볕에서 논밭일을 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에서 근면과 성실을……
논 두렁 길에서 반갑게 인사하는 부락 어른들의 모습에서 예의를……

봄에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며, 기나긴 세월동안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으면서, 폭풍과 비바람을 이겨내야만,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정직을 배운다.

도덕은 사람을 대할 때의 기본원리가 무엇이고, 일을 처리할 때의 기본원리가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도덕이다.

참 마음을 가지고 참 생활을 힘쓰고 참사람이 되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간도덕의 근원이다.

참의 자리로 돌아가자, 참의 인격자가 되자, 참의 정신으로 일을 하자, 이것이 도덕의 근본이다.

참의 공부가 인간의 도덕공부의 근본이다.

참이 없는 사랑, 참이 없는 우정, 참이 없는 신앙, 참이 없는 교육, 참이 없는 정치, 참이 없는 거래는 모두 다 허망하게 된다. 거짓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는가? 거짓의 산물치고 좋은 것이 없다.

고령화 시대의 삶

"인생 110세" 설을 노래했던 사람은 미국의 노인문제 연구소 베틀러 소장이었다.

그는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인간은 110세까지 살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나이는 60이라도 생물학적 기능은 40세에 지나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도 그의 주장이다.

가령 70세에 피격 당했던 레이건 미대통령이 수술 후 빠른 회복을 보인것도 사실은 그의 생물학적 나이가 60세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풀이다.

인생은 40부터 라는 말도 이젠 옛말이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오히려 기세를 더 해간다. 70청춘의 노래소리도 들려온다. 얼른 들으면 그 모두가 황홀한 삶의 찬가들인것 같다. 그러나 그 황홀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왜, 노년은 연령차별에 울어야 되기 때문이 아닌가!

흰 머리가 하나 둘 늘어 난다고 해서, 때때로 건망증·수면장애·의욕감퇴·무기력에 빠진다고 해서 "나이는 어쩔 수 없다"라고 탄식과 체념할 일이 아니다.

흰 머리는 늙음의 표시가 아니라, 원숙의 훈장……이제부터 육체의 스테미너와 아울러, 정신의 스테미너를 왕성하게 유지하여 보람찬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늙어가는 상증은 막을 길 없다는 다음과 같은 적중적인 "시조"한 귀절이 있다.

한손에 막대잡고, 또 한손에 가시 잡고
늙는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하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인과 응보(因果應報)

한 젊은이가 10년동안 머슴살이를 하고 품삯으로 금덩이 한개를 받았다. 로

그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부모에게 전하려고, 부지런히 길을 걸었으나, 어느듯 해가 저물어 주막에서 묵어갈 수 밖에 없었다.

이른날 아침 일찍이 주막을 출발한 젊은이가 10리쯤 갔을 때, 뒤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젊은이가 뒤돌아 보니 주막집 주인이 뛰어오고 있었다.

「당신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갔기에 이렇게 쫓아 왔소」하면서 내미는 것은 젊은이가 가졌던 금덩이였다.

젊은이는 몇번이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는 다시 길을 제촉해서 어느 강가에 이르니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고 있었다. "왠 일인가"하고 고개를 내밀어 넘어다본 젊은이는 깜짝 놀랬다. 장마로 잔뜩 불어난, 강물에는 한 아이가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만 안타까워 발만 동동 구를 뿐, 한사람도 선듯 뛰어들어 아이를 구하려는 용기 있는 사람은 없었다. 내

젊은이는 공교롭게도 헤엄을 못친다. 그래서 품 속에 있는 금덩이를 꺼내서 높이 쳐들고 외쳤다.

「누구든지 저 아이를 구해 주면, 이 금덩이를 드리겠소!!…」

그러자 한 사람이 그제야 옷을 벗고 나서드니 "첨벙" 하고 강물에 뛰어들어 헤엄쳐 나가 마침내 아이를 구해 나왔다.

이래서 젊은이는 그 사람에게 금덩이를 주었고, 배를 누르면서, 물을 토하게 하여 드디어 살릴 수 있었다.

이때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 왔다. 자세히 보니 그는 바로 다름아닌 주막집 주인이었다.

「이런 고마운 일이 있겠소. 내 아들을 구하려고 귀한 금덩이를 남에게 주다니」 주막 주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감사의 말을 하자, 젊은이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무리 금덩이가 귀한들 사람의 목숨에 비하겠읍니까? 사실은 댁의 주막에 떨어트리고 나왔을 때 부터 그것은 제 물건이 아니었읍니다. 그러나, 다행이 그것으로 아이를 구했으니 저는 얻은것도 잃은것도 없는 셈이지요. 댁은 정직한 마음씨의 보답을 받은 것이라 피차 두루두루 좋지 않습니까.」

賛助人名單

五萬 원 都評議公派 泰弘 (日本神戸)
貳萬 원 都評議公派 昌信 (忠正路)
貳萬 원 按廉使公派 君會 (瑞麟洞)
壹萬貳千원 泰玉 (水踰洞)
壹萬 원 都評議公派 榮秀 (大邱)
壹萬 원 提學公派 泰龍 (密陽)
壹萬 원 都評議公派 弘秀 (新林洞)
壹萬 원 翼元公派 璨會 (奉天洞)
壹萬 원 翼元公派 正千 (義昌)
壹萬 원 都評議公派 浩石 (義城)
壹萬 원 典書公派 大會 (묵정洞)
壹萬 원 都評議公派 殷聖 (水蝓洞)
壹萬 원 翼元公派 泰淑 (扶餘)
壹萬 원 提學公派 明年 (槐山)
壹萬 원 翼元公派 明均 (高陽)
壹萬 원 都評議公派 浩山 (義城)
壹萬 원 翼元公派 光表 (全州)
壹萬 원 翼元公派 永植 (高敞)
壹萬 원 翼元公派 榮德 (大邱)

(二面에서 계속)

按廉使公派 鎭國 (淸州)
按廉使公派 在福 (淸原)
按廉使公派 昌會 (淸州)
按廉使公派 在一 (淸原)
按廉使公派 斗會 (서울)
翼元公派 榮俊 (富川)
翼元公派 在起 (水原)
翼元公派 基成 (仁川)
翼元公派 洪會 (高敞)
翼元公派 洙栢 (서울)
翼元公派 英植 (安東)
翼元公派 恒植 (서울)
翼元公派 泰雄 (서울)
翼元公派 永會 (서울)
翼元公派 大默 (江陵)
翼元公派 在善 (晉州)
翼元公派 學永 (서울)
書雲觀正公派 寬浩 (서울)
正儀公派 松默 (서울)
正儀公派 純宇 (楊平)

日本史에서 본 東征記 ~7~

(前號에서 계속)

아에 幕府는 元軍襲來 以後로 關東에 있는 軍勢와 이쿠사부교(軍奉行)를 차례로 派遣해서 防備의 增强에 힘쓰고 있었으나、元軍의 上陸도 이제는 目前에 臨迫한 때라、總力을 傾注해서 國防에 臨하여야 한다는 見地였을 것이다。

朝廷에서는 通例로 幕府支配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寺社權門領이나、本所領家、一圓地의 莊官들까지도 견딜 수 있는 者는 모조리 幕府의 指令에 따라 戰場에 나가도록 勅許를 請하고 있었는데 이는 日本曆으로 閏七月九日의 일이며 現地에서는 이미 掃蕩도 마친 後의 일이었다。

그리고 元軍을 覆滅했다는 通報는 그달 十四日에 京都까지 傳해졌다。이제 京都의 天地에는 干先 기쁨의 人波로 가득찬 光景은 想像할만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蒙古再浸이 豫想되는 不安이 完全히 가버린 것은 아니었다。이에 따라 日本의 朝廷에서는 그 달 二十日에 九日로 溯及해서 幕府의 陳情을 承認하였다。現今에는 有力한 一說로 "이로 因해서、幕府는 本所一圓領의 莊官인 非御家人까지도 御家人의 制度속에 編入하였다고도 하나 이를 믿지 않는 史家도 적지 아니하다。그러나 蒙古의 被襲을 楔機로 해서 幕府의 權限이 補增된것만은 事實이며 蒙古의 東征이 日本 國內의 政治体制에 波及된 큰影響中의 하나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否認하지아니한다。

翌八月에는 幕府에서 새로운 計劃을 세웠으니、즉 九州의 御家人에게 『異國征伐』의 大命을 내렸다。그것은 少貳나 或은 오토모(大友)로 하여금 大將軍을 삼아 九州地方의 지쿠젠(筑前)후 젠(豊前)·후 고(豊後)의 御家人으로 하여금 高麗를 征伐시키자는 것이었고、또 여기에는 야마시로(山城)·야마도(大和)같은 「惡黨」五十六名을 參加시키기로한 事實이 밝혀져 있으나 實行한 事實은 없다。

한편 元나라에서는 八月(日本曆 閏七月)二十九日에 東征失敗의 報告가 世祖에게 傳達되었다。이 때、世祖는 大驚落膽도 하였겠지만、後日에 있을 日本의 報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그래서 元의 直轄地인 耽羅(濟州島)의 警備를 더욱 强化할 것을 高麗의 朝廷에 命令하였고、金州(金海)에는 鎭邊萬戶府를 設置해서 日本을 警戒할 態勢에 萬全을 期하였다。

또、征東軍에 後續할 豫定이었든、軍兵을 慶元·上海·澉浦等地에 駐屯시켰고、征東에서 歸還한 兵을 大陸의 沿岸守備에 充當하였다。

그리고、얼마 후에 元에서는 征東行省(征日本 中書省)을 廢止했으나、數年後에 復活했으며、이래서 征東行省의 復活과 廢止는 二~三次나 反復하면서 軍備를 整備强化하였다。

그러나、그때마다 高麗나 中國에서 叛亂과 紛爭이 일어 나서 日本遠征의 實行은 不可能하였다。

一二九四年에 世祖는 죽었다。그래서 元은 日本征伐의 計劃이 事實上 終止符를 찍었고 講和같은 形式的 節次도 없었으니、兩國間에 平和的 修交는 없었으나 民間交易船의 往來는 杜絶되지 아니하였다。또 이로인해서 倭冠라는 海賊들이 高麗의 東南部를 비롯해서 大陸의 沿岸까지 橫行할 수 있는 것도 二次東征의 直後부터이다。

그러나 九州에서는 그 뒤에도 異國驚固番役과 石築地役事를 繼續해서、이 工事는 카마쿠라(鎌倉)幕府가 滅亡할 때까지 持續되었다。

元帝 世祖는 結局 日本服屬의 計劃은 成就하지 못하였고、日本은、世祖가 東征에서 失敗한 原因을 分析할 때、日本이 神의 加護로 카미가제(神風)라는 神奇한 바람에 依한 것이라 믿는 風潮가 생기게 되었고、한편으로 日本의 勇士들의 奮鬪의 成果로 보기도 했다。

이 神風의 奇蹟은 日本人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傳해온、民族精神으로 되어 버렸고、神國이라는 確固한 信仰으로 변해서 지난 四十年前에 있었던 第二次大戰때까지도 그 精神은 日本人의 머리 속 깊이 박혀 있었다。

筆者는 當時에 日本軍屬으로 强制徵用되어 世界 二次大戰의 決戰場인 沖繩에서 熾烈하고도 慘酷한 光景을 直接 目睹하고 生還한 中의 하나이다。

一九四五年 三月下旬부터 全面戰으로 突入한 沖繩戰은、始初부터 制空·制海權을 掌握한 美軍은 六月 初에는 地上軍의 主力을 完全히 擊滅하게 되니 日本軍은 分散되어 敗走의 길을 찾는 敗殘兵으로 우굴거리고、每日같이 後退에 後退만을 거듭하는 狀況속에서도 神風이라는 神의 加護를 믿고 있었다。"美國이 總力을 이 沖繩戰에 쏟고 있으니 神風이 불어 敵의 艦船만 모두 쓰러트리면、日本은 勝利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

그러나 六月二十三日 戰鬪는 完全히 끝나고 美軍이 全域을 占領할 때까지 神風은 불지 않았다。

颱風은 그해 九月 初旬에 沖繩의 全域을 휩쓸어 美軍의 艦船이나 飛行機 그리고 施設物에 莫大한 被害가 있었지만 萬若에 그 바람이 六月에 불었다 하더라도 戰勢의 變化는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그래서 日本의 史學家는 勿論 三尺童子까지도 오늘날 神風의 奇蹟을 믿는 日本 사람은 없을 것이다。

何如間、二次의 東征때는 大風의 장난으로 失敗에 그친 것은 事實이다。이 무서운 바람이 아니었더라면 그 때의 狀況은 달랐을 것이고 東洋의 版圖나 歷史는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日本의 史學家들은 이 때의 일을 「天佑神助」니、「神風」이니 하는 記錄을 抹消하려 한다。

科學의 發達과 文明의 成長속에서 얻은 그들의 頭腦는「神風」이니、「天孫」이니 하며 살아온 觀念을 祖上의 愚知로 돌리고 있다。

『蒙古襲來』의 著者 구로다(黑田俊雄)氏도 그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는 말하기를

「때마침 二次나 大風으로 元의 軍船에 큰 被害를 입힌 것은 事實이다。萬若에 이러한 바람이 없었더라면 그 후의 狀況은 相當히 變化된 經過가 持續되었으리라는 推側도 明確하다。그러나、이러한 바람을 「天佑神助」로 보고「神風」으로 말하던 생각은 實은 元의 軍勢를 絶對的으로 强力하고 完璧한 것으로 보는데서 나온 것이다。元은 왜 「風濤險阻」를 타고 넘을만한 戰略과 軍隊를 갖지 못했는가?、내가 이제까지 本書(蒙古襲來)에서 必要以上으로 蒙古나 高麗의 事情에 接해온 것은 이러한 疑問을 正面으로 부딪쳐서 確實히 하고져 한 까닭이다。」

라고 하였으니 黑田 氏의 이같은 생각은 神國主義라는 思想에서 完全히 脫皮한 새로운 歷史觀을 整立하려는 努力이라 할 수 있다。

이제 日本의 史學界에서는 元이 東征에서 失敗한 原因을「神國을 守護하는 神風의 奇蹟으로는 보지 아니한다。當時에 精銳를 자랑하는 蒙古軍은 아무래도 輕裝騎馬의 機動力에 있었고、그 戰場은 荒茫한 平原이나 沙漠의 黃塵속에서 만이 可能하였다。그러나 大帝國의 版圖가 擴張함에 따라 地理的 條件이 險惡해지면、侵攻의 威勢는 漸漸 鈍化되고 여기서 進攻의 限界點이 나타난다。森林이 欝密한 地帶나、熟帶地方、特히 渡海를 要하는 곳에서는 進攻을 하여도 失敗만 거듭되고、終乃는 斷念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蒙古軍의 勢力이었다。蒙古軍은 海戰에 弱하다는 點도 있었지만 無知無能했다는 表顯도 可하다고 본다。「一衣帶水」요、「指呼之間」에 보이는 江都의 高麗朝廷을 四十年間이나、건느 보려고 計劃 한번 세워보지 못한 點으로 미루어 볼 때 日本人의 觀點이 明確할것 같다。

그러나、아무리 바다에는 弱하다 하더라도、一段 上陸한 것은 事實인데、이것만으로는 解明이 되지 못한다。그래서 日本人이 가장 重視하는 것은 東征軍의 編成이 高麗나 그밖에 漢軍、女眞軍、蠻軍(南宋)等 服屬한 降伏軍으로 組織된 點을 들고 있다。强制에 못이겨 不得已 從軍한 兵卒들에게 戰意가 있을 수 없고 毒鞭과 叱意에 呻吟하면서 製作된 軍船이나 武具는 粗惡하고、各樣의 戰歷을 가진 指揮官들은 充分한 結束을 이루지 못하였으나、蒙古의 事情으로 봐서 日本征伐은 이들에게 맡기지 않고 서는 上陸作戰의 計劃이 서지않았다。

바다는 구경 조차 하지 못한 蒙兵으로 東征計劃을 세운다는 것은 無謀한 짓이며、거센 風浪을 克服한다는 것은 消極的이며 致命的 結果로 潰滅된다는 世祖의 判斷이라고 主張한다。

그래서 進攻의 限界點을 地形이나、氣候에 基因된바가 아니고、人間關係에서 나타난다고 그 現實을 立證하고 있다。

日本史에 依하면「東征軍이 壹岐島와 志賀島에서 特攻隊가 上陸하였는데、그들은 金 方慶이 이끄는 高麗軍이었다」고 記錄되어 있다。그러나 東征軍이 特攻隊를 組織했다는 事實은 없었다。이는 다만 高麗軍이 언제나 先鋒에서 機先을 잡고 果敢한 上陸戰을 展開한 勇敢性을 보고「特攻隊」로 記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數的으로는 高麗軍이 弱勢이며 民族을 달리하는 指揮官들의 作戰이나 戰意는 各異各樣으로 相互間에 意見의 對立은 마침내 軍勢를 弱化시키는 原因이 되기도 하였다。

結論的으로 말할 때、元의 世祖가 天下를 統一했다는 莫强한 힘만 믿고 他民族으로 하여금 征伐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잘못이었다。他民族을 시켜서 世界를 支配하려는 것은、結局 될수 없는 일이다。그러한 支配는 멀지 않아서 破綻으로 끝난다는 사실은 東西古今의 歷史가 말하고 있다고 日本의 史學者들은 論評하고 있다。〔끝〕 【元榮 記】

會秀理事渡美·歸國

國際醫療器機展示會參加次

大宗會 理事인 都評議公派 會秀 宗親은 韓榮貿易(株)副社長으로서 今年들어 두번째로 지난 十一月 六日 부터 三日間의 日本出張에 이어 지난 十一月 二十八日에는 北美시카고에서 開催된 國際醫療器機展示會에 參加次 出國해서 十二月 六日、하와이 經由로 歸國하였다。

會秀 理事는 이번이 二十年만에 있었던 美國旅行으로 그 成果가 至大하고 感懷가 깊었다고 한다。

◆訃 告◆

大宗會 前理事이며、翼元公派 副會長으로 平生을 宗事에 獻身竭力하신 泰淑 氏께서 지난 一月六日(陰 十一月十七日)에 急患으로 扶餘郡 扶餘邑 松間里 自宅에서 享年七十七歲로 別世하셨다。

추원단가(追遠短歌)

大邱宗親會 翼元公派 洪 默

1。
어화우리 종친들아、우리본향 안동땅은
경상도의 제일명지、지령따라 인걸나니
회곡동에 용운빛혀、우리선조 출생했네
홍안십육 등관하사、일평생을 벼슬길에
중상모략 많았것만、충효정신 근본하여
위국충절 다하셨네、팔십구세 병을얻어
본댁에서 ①절광하니、임종시의 유언따라
선영하에 심택하여、능골비봉 포란형에
우리선조 안장했네、

2。
어화우리 종친들아、선조유적 찾아보세
안동선비 시창하던、영호루를 찾아가서
충렬공의 현판보니、②등왕각이 연상된다
능골산소 가는길에、구송동에 잠간내려
신도비문 숙독하니、애국충절 ③대려같네
능골산소 성묘하고、비위단소 가는길에
풍산들에 농부만나、상락대가 어디뫼뇨
손을잡고 물어보니、만고풍상 눈비맞아
산정누각 헐어졌고、눈비맞아 굳은땅에
잡초황망 욱어졌소、그말듣고 바라보니
외송나무 홀로섰네、저기섰는 외송나무
눈맞으면 백발되고、바람불면 소년되니
충렬공의 기상같다、천년간들 변할소냐
만년간들 굽힐소냐、회곡동에 당도하여
비위단소 성묘하고、유허비에 배례하니
우리선조 높은훈업、이제서야 알았도다
기리기리 보존하세。

註
① 절광(絶纊)：별세·운명
② 등왕각(騰王閣)：당나라 고조의 아들 이윤영이 홍주자사로 있다가、등왕으로 봉작되어 등왕각을 지었는데 다음 자사가 자기 사위의 학문을 자랑하기 위해서 시모(詩募)를 하였는데 기재인 왕 발이 나타나서 그 학문과 덕망이 떨어졌다는 설(說)
충렬공의 시를 왕 발의 시와 비유할 때 등왕각이 연상 되었음。
③ 대려(帶礪)：태산 보다 높고 대해(大海)보다 깊다는 말。

二別抄 (9)

(前號에서 계속)

세조(世祖)의 조서를 받고, 임 연은 사태의 수습이 다급했다。 그 해 九월에 임 연은 추밀원 부사(樞密院副使) 김 방경(金方慶)과, 대장군 최 동수(崔東秀)를 몽고에서 온 사신과 함께, 세조에게 보내서 배신표(陪臣表)를 올리게 되었다。

「前王은 질병이 점점 커져서 오직 몸을 보호하고 수(壽)를 연장하기 위해서 간절히 사영(辭榮)하며, 퇴위(退位)하고, 하물며 그 아우에게 전하라는 선군(先君)의 말도 있었는데, 대개 소방(小邦)은 하루라도 국왕의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것이라, 창(倡)은 실로 부왕의 명을 거스리고, 신자(臣子)의 떳떳한 도리를 어길까 염려하여, 부득이 보리(保釐:王坐)를 권섭(權攝)하고, 이미 이 사실을 알렸고, 그 왕과 세자 족속의 가부(可否)는 왕인(王人)의 보심을 바라오며, 아울러 천개(賤介)의 입으로 그 원실(原實)을 진술하오니, 정상을 살펴 진자(軫慈)하시며, 가휼(加恤)하소서」

임 연이 이러한 배신표(陪臣表)를 세조에게 올려야한 것은, 강력한 세조의 조서에 대한 변명의 회신이었고, 고려사람으로서 세조의 신임을 가장 두텁게 받고 있는 김 방경으로 하여금 주상(奏上)하는 것이 세조의 분노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 하였지만, 김 방경의 생각은 달랐다。 "세조를 직접 만나 고려의 사정을 호소하고, 국왕을 폐립한 임 연의 비리를 고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고 생각 되었다。

그 해 十월에 임 연은 유배(流配)중인, 평장사 류경(柳璥) 추밀원 부사 장 계열(張季烈)·하리(西北路 摠管下吏)최 탄 대장군 기 온(奇蘊)을 석방하라, 하고서는 강도(江都)에 도착 되기도 전에 다시 다른 섬으로 유배 시켰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서북면 병마사영 기관(西北面兵馬使營 記官)인 최 탄(崔坦)과 한 신(韓愼), 그리고 삼화현(三和縣) 사람 전 교위(前校尉) 이 연령(李年齡)·정원도호 낭장(定遠都護郎將) 계 문비(桂文庇)·연주(延州)사람 현 효철(玄孝哲) 등은 "임 연(林衍)을 주살(誅殺)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그 무리를 불러 모으자, 용강(龍岡)·함종(咸從)·삼화현(三和縣)의 사람들이 봉기하여 먼저 함종 현령 최 원(崔元)을 죽이고 밤중에 하도(椵島)로 들어가서, 분사어사(分司御史) 심 원준(沈元濬)·감창(監倉)박 수혁(朴守奕)과 경별초(京別抄)등을 죽이니, 상황은 완전히 반란의 사태로 변하고 말았다。

이에 창(倡)은 왕권(王權)을 발동해서, 이 군백(李君伯)을 북계 안무사(北界安撫使)로, 현문혁(玄文奕)을 역적 방호장군(逆賊防護將軍)으로 삼아, 군사 一백五십명을 거느리고 나가 치게 하였는데, 이 때, 서북면 병마사(西北面兵馬使) 홍록준(洪祿遵)이 개경으로 달려 왔기에 국자제주(國子祭酒)장 일(張鎰)을 이에 대하였으나, 이 군백은 나가기도 전에 적을 두려워 해서 돌아왔음으로 그 벼슬을 깎아 버리고, 전시어사(前侍御史)박 휴(朴烋)를 이에 대신 했다。 그리고 시랑(侍郎)진 자후 (陣子厚)를 하정사(賀正使)로 원(元)에 파견하면서 부주(附奏)하기를

「소방(小邦)의 서북로 총관(崔坦)등이 용강, 함종의 백성들과 더불어 반역을 도모하자, 삼화의 어리석은 백성들은 결당(結黨)하여, 함종현령을 죽이고, 또 이달 五일에는 폭도가 총관, 본도(總管本道)에 들어와서 행대어사(行臺御史)·감창사(監倉使)를 살해하고 약탈을 자행하여 용강현 경계에 주둔 하면서, 많은 유세(遊說)를 벌리면서, 나라를 배반하고, 멋대로 횡행하면서 허물을 본국에 돌리려하니, 마침내는 어떠한 악언(惡言)으로 조정(元朝)에 알릴지 알지 못하겠으므로 이를 알리오니 자상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하였다。

한편 최 탄은 서경 유수(西京留守)와 용주(龍州) 영주(靈州)·철주(鐵州)·의주(宜州)의 수령을 모두 죽이고, 서북지방의 모든 관리가 그들에게 죽음을 당하였다。 그리고 최 탄은 원의 사신 탈타아(脫朶兒)에게 거짓말로 고하되 「고려는 전국토를 거두어 장차 해도로 깊숙히 들어 가고자 함으로 모든 성의 수령을 죽이고 이를 상국(上國)에 알릴 뿐이다」하였다。 그리고 의주부사(義州副使)김 효거(金孝巨)등 二십二명을 잡아 원나라로 압송하였다。

십一월에 원제(元帝)는 병부시랑(兵部侍郎) 흑적(黑的)과, 치래도 총관부 판관(菑萊道 摠管府判官)서 중웅(徐仲雄)등과 만나고 조서(紹書)를 보내었다。

「고려국왕 식(植)의 요속군민(僚屬軍民)에게 유시할 것은 근자에 왕 식을 질병이라 칭하고 아음대로 안경공창(安慶公 倡)으로 하여금 국사를 권총(權摠)케 하였으므로, 사자를 파견하여 묻게 하였든바, 지금 사자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임 연(林衍)이 이일은 모두 자신의 소행이라"전하나 그러나, "권력이 있는 자는 능히 폐립을 행하는데, 신위(臣位)는 七인의 밑에 있으니 무슨 권력으로 능히 이런 일을 하였는가?"라 하므로 그 말을 믿을 수 없으니, 왕은 안경공 창으로 더불어 임 연과 함께 예궐(詣闕)하고 하면(下面)하여 그 실정을 진술하게 하라。 짐(朕)은 그 시비를 듣고 이를 처리할 것이다。 또한 왕 식은 병이 없다고 들었으니 그 촌망(存亡)또한 가히 보장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내견(來覲)할것을 기다리노라。 짐은 이를 바로 믿으려고 이미 두련가 국왕(頭輦哥國王)을 파견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지경을 누르겠으며, 때가 되어도 이르지 않으면, 마땅히 수악(首惡)을 궁힐(窮詰)하기 위하여 진병(進兵)하고, 가차 없이 처단할 것이다。」

이러한 조서를 받은 임 연은 그제서야 당황하였다。 그러나, 이미 엎드린 거럿에 그 물을 담을 수는 없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임 연은 三일만에 모든 제추(宰樞)를 자기 집에 모이게 하여, 조서의 회답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아무도 자신 있는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임 연은 다시 三~四품(品)에 해당하는 모든 관원으로 하여금, 조서에 대답할 문안(文案)을작성하게 하되, 무기명(無記名)으로 제출케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묘안이 나올 수는 없었다。 이틀후에 임 연은 흑 적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기로 하였다。 상국(上國)의 사신을 환영한다는 명목으로 베푸는 연석(宴席)이라 하지만, 실은 흑 적의 앞에서 자신의 소행을 정당화 시키든지, 아니면 세조의 진노를 푸는데 흑 적으로 하여금 일익(一翼)이 될 수 있는 길을 터보자는 임 연의 심산이었다。

이 날 연석은 임 연이 자기의 집으로 정하고 화려하게 단장을 하였고, 산해진미로 장만한 상 들은 극치를 이루었다。

이 때, 흑 적은 「사태를 수습하고저 한다면 왕을 복위(復位)시켜야 한다」고 말하자, 임 연은 할 수 없이 제추(宰樞)를 모와서 창(唱)을 폐하고 원종(元宗)을 복위 시킬것을 의논하였다。

다음 날, 원종은 흑 적 등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은 흑 적을 상좌(上座)로 권하였으나, 흑 적은 사양하였다。

「이제 왕태자(王太子)께서는 이미 제녀(帝女)와 혼인이 허락 되었으니, 우리들은 황제의 신하지만 왕께서는 황제의 부마대왕(駙馬大王)의 아버지 신대, 어찌 감히 예를 거스리이까, 왕께서 서면(西面)하시면 우리들은 북면(北面)하고, 왕이 남면(南面) 하시면 우리들은 동면(東面)할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왕은 기어히 사양하면서

「천자의 사자를 어찌 하좌(下座)시키오리까?」

하고 동서로 대좌하였다。

다음 날(甲子), 원종은 복위하고 창은 그날로 돌아갔다。 이 때, 백관(百官)은 왕부(王府)에 가서 호가(扈駕)하면서 입궐을 하는데 원의 사신들도 이를 따르니 보는 사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었다。 흑 적 등은 "백관이 하례하는 광경을 직접 보자"고 청함으로 왕은 자포(紫袍)를 입고, 뜰에 나와 北쪽을 향하여 요배(遙拜)한 다음 황의(黃衣)로 가라 입고, 강안전(康安殿)에서 백관 들로부터 하례를 받았다。

원종은 이어서 봉어(奉御)박 휴(朴烋)를 원 나라에 파견하고, 글을 올려서 폐립과 복위에 대한 경위를 알리되,

「신(臣)은 일찍 잔약한 체질로 인하여, 갑자기 병을 얻어, 약을 먹으면서, 그 보람을 보고져하여, 아우 창에게 국사를 맡아 지키게 하고 사자를 파견하여 그 연유를 알리었던바, 이제 성덕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국사를 잡게 되었아오며, 더욱 여러번 간곡하신 훈유(訓諭)를 받자옵고, 또한 좋은 말(華騁)를 내리시어 사랑의 부르심을 받았아오니 이제부터 다시 국정에 힘쓰며, 마땅히 궐정(闕庭)에서 알현(謁見)할 것입니다。 駿 扶扶俳俳

원종의 이러한 상서는 임 연의 궁상을 양해해서, 세조의 분노를 풀도록 하기 위한 처사였고, 임 연의 궁상이 바로 나라의 궁상과 직결되기 때문이었다。

(계속) (元榮 記)

按廉使公派宗親에게告함

按廉使公派大宗會에서 編纂中에 있는 派譜刊行事業은 그동안에 各 宗人들의 誠意있는 協助와 任員들의 努力으로 收單接受도 擧矣 完了의 段階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一部宗人께서 收單提出을 疏忽히 생각하고 있어 譜事推進에 莫大한 蹉跌이 招來되고 있아오니 아직 單子를 提出하지 아니한 宗親께서는 오는 **2月 10日** 까지 無違提出하시기 바랍니다.

※ 2月 11日 부터는 印刷에 着手할 精書(原稿作成)을 始作하오나 이 期限內에 事情上 不得已할 境遇에는 當分間은 追後接受를 할것이오니 可級的 早速히 提出하시기 要望합니다.

1988年 1月 15日

按廉使公派大宗會

會長 金在晩

移轉公告

(翼元公派宗親會事務室)

本 翼元公派宗親會事務室을 宗務擴張에 따라 다음 場所로 移轉하였음을 公告합니다.

* 다 음 *

- 移轉場所: 서울 城東區 華陽洞 41-18 (世運自動車學院內)
- 電話番號: **462-9407**

翼元公派宗會長 金吉成 白

서울市公務員教育院

庶務課長

金昌信

(都評議公派)

서울·西大門區 忠正路3街30-6

전화: **362-2114**

全州遞信廳長

金君會

(按廉使公派)

서울·鍾路區 瑞麟洞 154-1